

제 13 차 대한두경부종양학회

■ 포 스타 ■

1

극도로 빠른진행을 나타낸 갑상선역형성암 1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해부병리학교실*
김 중 규 · 장 희 경*

갑상선 역형성암은 갑상선암의 15%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50세이후에 나타나며 60~70대에 가장 빈발한다.

남녀비는 1.3 : 1 정도이며 피낭을 형성치않고 갑상선 밖으로 널리퍼져 주변조직을 침윤한다. 환자는 보통 통증을 수반한 갑상선장애패와 이로 인해 주변이 눌린 증상을 보인다.

진단시에는 이미 국소림프선과 경부의 연부조직으로 침윤되어있고 폐나 골로 원격전이가 있기도하며 극도로 빠른 진행을하여 예후가 매우 나쁘다. 57세 여자환자로서 3개월간에 갑자기 커져버린 우측갑상선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매우 견고하고 거의 가동성이없이 고정된 양상이었으며 환자는 경부동통과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갑상선전절제술 및 경부광청술을 실시하였고 술후 경부압박감의 완화가 있었으나 술후 3일부터 우측 측경부가 팽만되며 단단한 종괴가 만져졌으며 호흡곤란 및 애성을 호소하여 술후 8일째 재수술하여 급격히 재성장한 전이성 임파선을 제거하였다.

재수술후 adriamycin, cisplatin... 등을 정주하고 방사선치료도 동시에 실시하였으나 재수술후 2개월에 다시 경부임파선 재발 및 폐전이가 나타나서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하고 퇴원하여 재수술후 3개월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2

갑상선에 발생한 원발성 악성 림프종 1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현웅 · 박일석 · 노영수

악성림프종은 림프절 및 림프조직에 존재하는 망상내피 계통의 세포 및 림프세포에서 유래하는 악성종양으로 갑상선암을 제외한 두경부 비상피성암중 가장 흔하며 주로 경부, 액와부 등의 림프절에의 침범이 많고, 림프절외 부위는 소화기계, 구개편도, 비강 및 부비동 등에서 발생하며 갑상선에 원발성으로 발생하는 림프종은 전체 갑상선 악성종양의 0.3~1.8%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나이든 여성에서 호발하고 림프성 갑상선염과 동반되어 많이 나타난다.

저자들은 최근 55세 여자가 경부종물 및 피로를 주소로 내원, 세침흡인검사상 악성림프종과 전이성 소세포암이 의심되어 갑상선 부분절제술후 조직검사상 악성림프종으로 확진되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의 병합요법을 시행한 증례가 있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3

국균성 부비동염의 CT 소견과 일측성 부비동 질환과의 감별: 삼악동벽 비후정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이범하 · 김의중 · 최우석 · 윤엽
홍남표* · 안희영*

목적: 국균성 부비동염의 CT 소견은 보고되어 있으나 다른 일측성 부비동 질환들과의 감별이 용이하지 않아 상악동벽의 비후 정도에 따른 감별점을 찾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수술로 확진된 15예의 국균성 부비동염에서 CT상 비후된 상악동의 전벽, 상벽, 외측벽의 두께를 측정한뒤 반대측의 정상 상악동벽의 두께와의 비율을 비교하였으며 osteomeatal unit의 확장, 석회화, 부비동 주위의 골 미란 등의 소견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술로 확진된 만성 일측성 부비동염 9예와 반전성 유두종 6예, 상악동 후비강용종 5예의 CT 소견을 같은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국균성 부비동염 전예에서 상악동의 골벽비후가 나타났으며 반대측 정상 상악동벽과의 비교값은 전벽 1.4, 상벽 1.54, 외측벽 1.81로 외측벽에서 두드러졌다. 국균성 상악동염과 만성 일측성 상악동염 9예를 비교하였을때 상악동 전체의 비후는 통계적 의의가 없었으나 외측벽만을 비교하였을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0$). 반전성 유두종 6예, 상악동후비강용종 5예와의 비교에서도 유의하게 국균성 상악동염의 골벽비후가 심하였다. 국균성 부비동염, 만성 일측성 상악동염, 반전성 유두종, 상악동 후비강용종 전예의 외측벽비후에 의한 비교값이 1.5배 이상 비후되었던 것은 11예였으며 그 중 10예(90.9%)가 국균성 부비동염이었다. 부비동의 석회화는 11예에서 관찰되었으며 osteomeatal unit의 확장이 보인 12예는 구상돌기의 압박과 미세한 골 미란이 전예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의 골 미란은 없었다. 반전성 유두종중 2예에서 osteomeatal unit 확장이 있었으며 이들에서 구상돌기의 압박과 미세한 골미란이 관찰되었다. 상악동 후비강용종의 5예중 1예만이 osteomeatal unit의 확장을 보였다. 반전성 유두종과 상악동 후비강용종에서 석회화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 국균성 부비동염에서 관찰되는 상악동벽 비후는 특히 외측벽에 가장 심하며 이 소견은 기존의 CT 소견인 osteomeatal unit의 확장, 골미란, 석회화와 함께 만성 일측성 상악동염, 반전성 유두종, 상악동 후비강용종등과 감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상악동의 편평세포암종에 관한 임상적 고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이승호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저자들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상악동의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받은 64례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남자 47례, 여자 17례이었다. 평균 연령은 55.8세이고, 50대가 32례, 60대가 18례로 대부분이었다. 증상으로는 협부종창이 32례로 가장 많았고, 비폐색 21례, 두통 18례, 비출혈 13례의 순이었다. 방사선조사만을 시행한 경우가 24례, 방사선조사와 동맥내 항암제 주입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2례, 부분 적출술후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경우가 14례, 전적출술후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경우가 24례이었고, 15례에서는 안구적출술을 동반하였다. AJCC(1992) 분류법에 의한 임상적 병기분류에서, 초치료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T stage는 T2 4/38례(10.5%), T3 10/38례(26.4%), T4 24/38례(63.1%)이었고, 초치료로 방사선조사를 받은 환자의 T stage는 T3 4/26례(15.4%), T4 22/26례(84.6%)이었다. 총 64례중 5례에서 경부전이 있었고, 원격전이는 없었다. 재발한 경우는 총 46례로, 국소재발이 44례이었고, 이중 4례에서 경부전이가 동반되었으며, 경부전이만 있는 경우 1례, 원격전이만 있는 경우가 1례이었다. 수술을 시행한 38례중 24례가 재발하였으며, 원발 부위 재발별로는 상악동 후연 8례, 안와주위 7례, 두개저부 5례, 구개 3례, 피부침범이 1례순이었다.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26례중 22례에서 재발하였으며, 원발부위 재발 20례, 경부전이만 있는 경우 1례, 원격전이만 있는 경우가 1례이었다.

두경부영역에서의 선양낭성암종